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성경말씀: 롬9:30-10:4

옆방의 교수님, 설계 전공, 창조와 진화

종교와 복음, 믿음과 행위(롬11:6)

기독교의 스펙트럼,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장로, 감리, 성결), 침례교회

국가교회와 자유 교회, 종교 교회와 복음 교회

어거스틴(천주교), 루터(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성공회(영국), 장로교(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청교도(비국교도 탄압),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거기서 또 국가교회를 세우려고 함.

미국의 경우에도 장로교, 천주교, 루터교, 침례교 등을 국가 교회로 인정하려 했음.

침례교의 반대로 처음으로 미국의 헌법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

성경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 여자 목사와 집사가 가능한가?(답전3장)

순복음 교회(Full gospel church), 조용기 목사, 김기동 목사, TV 유명 목사

그랬더니 믿음으로 100% 올인하는 것에 동의했음.

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네. 조심해야겠네.”이라고 답하였다. 율법주의 No! 종교주의 청산

1. 이스라엘의 패러독스(롬9:30-34)

패러독스: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론을 낳는 추론, 역설

신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설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출19:5-6): 특별한 보배,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여호와와의 아내

조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요1:11).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되 십자가에서 죽였다. 엄청난 패러독스이다. ★★★

롬9:30-33절 설명

32절이 핵심이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 ★★★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

우리는 어떤가? 왜 교회에 오는가? 일하러 오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왜 읽는가?

변화가 있는가? 교회 사랑하는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법으로 성화된다. ★★★

2. 바울 사도의 소원(1절)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목사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롬9:1-3, 사도 바울의 심정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였다. 패러독스의 일인자

우리는 어떤가? 내 민족, 내 옆에 있는 종교인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

3. 유대인과 그들의 특권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을 만드셨다.

이삭과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유대인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롬3:1-2)

메시아를 이 세상에 내기 위해(롬9:5),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요4:22-23),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상 역사의 시계: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 재림의 시기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시청각 백성

1948년 5월에 들어간 이후로 이 조그만 나라가 수억의 이슬람 세력과 대치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 성전 재건, 유대인들의 귀환, 아마겟돈 전쟁....

4. 유대인들의 열심(2-3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세운다. ★★★
우리 민족은 어떤가?

한국 민족: 유대인들과 많이 비슷하다. IQ는 더 좋다.

열심히 대단하다. 교육열이 대단하다. 손재주가 좋다.

했다 하면 1등: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배, 반도체, 자동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유대인을 능가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와 너무 많이 다르다.

100여 년 전에 장로교가 들어 왔다. 한국의 장자 교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였다.

칼빈주의는 구약시대의 신정정치를 신약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청교도들의 특징: 구약 시대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려다 보니 대단히 율법적이다.

깨끗이 하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국 자기 의가 되고 만다. 외적 모양 강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경향이 강함

한국에 이런 형태의 장로교가 들어오므로 인해 구약의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게 됨.

주일 성수, 십일조, 맥추감사헌금, 주초문제 강조, 의식 강조, 교회와 사회를 너무 이분화 함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아야 함. 교회에 너무 자주 오게 함, 목사에게 의존하게 함

10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 예배당은 성전으로 변하고 목사는 제사장으로 변함

축도권, 자동차를 사도 기도 받아야 함.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말았다.

심방 하면 돈을 찢러 넣어 주어야 함.

총회장, 노회장, 감독 선거: 금품 살포

대전의 장○○ 목사는 생일에 성도들이 한복 입고 춤을 춘다.

목사에게 생일 선물을 하려고 줄을 선다.

이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어떤가?

지식은 있다고 하는데 냉랭하지 않은가? 너무 냉랭하다. ★★★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벧전4:4).

그리스도인의 역설: pessimistic, optimistic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선포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후진 양성에 힘쓰고 성경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 항상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

4.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시다(4절)

율법은 거울과 같다. 나의 죄를 보여 준다. 그러나 죄를 고치지는 못한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율법을 글자로 대함으로 그 안의 영적 생명을 놓치고 말았다.

“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호6:6). 상한 심령, 부서진 영

끝마침(end): 시간적으로 끝이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다. 구약식 교회 폐지 ★★★

끝마침은 궁극적 목적을 뜻한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율법의 핵심인 희생제도(헌물, 절기, 성막)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율법의 사역을 끝냈다. ★★★ ★★★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끝났다.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의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취가 된다(롬8:4).

율법이 군림하던 일은 끝났다.

5. 결론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구약식 교회를 하지는 않는가? ★★★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영을 주셨다. 이것을 오용하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진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다. 성경을 글자가 아니라 영의 책을 대하기 바란다.